

권성범 목사
Rev. Kwon

에드먼튼 한인침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 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변화"**
10월 6일(월)부터 29일(수)까지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변화"의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Zoom: 449 832 3324). 기간 중에 수요기도회는 각 처소에서 드립니다.
- 성경 아카데미**
[102] 목적이 이끄는 삶: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202] 참 믿음의 다섯가지 가치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 음악 레슨**
문화사역의 일환으로 인터내셔널 음악 레슨(8주)을 11일(토)부터 시작합니다. 한인 대상 교실은 곧 시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원주민 선교 팔로업**
15일(수)-16일(목)까지 있는 원주민 선교 팔로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직 수련회**
돌아오는 11일(토) 오후 2시, 벤엘침례교회에서 제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오성락 목사(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네트워크 강원지역 대표, 하늘소망교회 담임)입니다. 서리집사 이상 모든 직분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약성경 필사**
성경필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사를 마치면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도용 성경**
성경과 사영리가 결합된 전도용 성경(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잠언)을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우 동정**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김영순, 김정현, 이광배, 장정윤, 김운희).
- 답임목사 동정**
캐나다 CNBC 총회: 18일(토), Lacombe.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대한 그림'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라 부르며,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몸으로 연합시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함께 상속자요, 함께 지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을 세 번 반복하며 이 연합의 비전을 강조합니다. 이 거대한 그림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녀가 여리고 성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길 때, 그것은 생명을 건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강한 왕들을 물리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대한 그림을 보았고,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우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볼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가 분명해집니다. 세상은 덜 혼란스럽고, 우리의 길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거대한 그림을 보는 것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본별'의 지혜입니다.

The Grand Picture That Simplifies Life

Every person lives bound by something. The Apostle Paul called himself "a prisoner of Christ Jesus," showing us what it means to be fully held by Him. When Paul met Christ, he began to see what he called "the administration of God"—the grand design of how God orders human history. The Greek word 'oikonomia' means "divine management" or "God's economy." Paul saw that God's great plan was to unite Jews and Gentiles into one body through Christ. Three times he repeats the word together—fellow heirs, fellow members, fellow partakers. This vision of unity became the center of Paul's life. Rahab's story in Joshua beautifully illustrates this. When she hid the Israelite spies in Jericho, she risked everything. Yet the choice was simple to her. She had heard how the Lord parted the Red Sea and conquered mighty kings. She saw the bigger picture—the God who rules heaven and earth—and her heart was settled. "The Lord your God," she declared, "is God in heaven above and on the earth below." When we see life through God's grand picture, priorities fall into place. The world becomes less confusing, and our path clearer. Seeing the whole does not make life heavier—it makes it simpler. It is the wisdom of clarity that frees the soul.

-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1] For this reason I, Paul, a prisoner of Christ Jesus on behalf of you Gentiles—

[2] assuming that you have heard of the stewardship of God's grace that was given to me for you,

[3] how the mystery was made known to me by revelation, as I have written briefly.

[4] When you read this, you can perceive my insight into the mystery of Christ, (ESV)

무엇에 붙들려 사십니까 What has captured your heart?



Translator QR code